

염산 가격 “100% 인상” 담합

한양·백광·카리 등 일시적 품귀 틈타 … 9월 85원대 재인상 추진

지난해 3/4분기까지 제조회가에도 못미쳤던 염산가격이 올 1월1일부로 kg당 70~75원으로 인상, 100%에 가까운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9~10월부터 염산이 품귀현상을 빚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한국카리화학과 경기화학에서 9월 각각 액체염소 누출과 염산방류사건이 발생, 가동이 중단된데다 한양화학과 백광산업이 9~10월 경 정기보수에 들어가 염산파동이 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화인케미칼이 11월 kg당 5~7원에 판매되는 부생 염산을 27원에 판매, 결국 업체 협의하에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92년 1월1일 현재 염산의 공장도가격은 kg당 50원 정도이고, 중개인을 거치는 경우 20~25원이 부가, 최저 65원 이상선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상에 대해 수요자측과 정부는 100%에 육박하는 부당인상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생산업체들은 제조회가를 고려해볼 때 염산 적정가격은 90년 상반기의 80~85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염산판매업체들은 올 9월경 80~85원으로의 재인상조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염산가격은 90년 상반기까지 kg당 80~85원에 거래됐으나,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공급과잉상태를 보여, 공장에서 중개인에게 판매하거나 수요자에게 직판하는 경우 kg당 30원에 거래되었고, 중개인이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kg당 40~45원이었다.

이 현상은 91년 3/4분기까지 지속돼 91년 7월에는 공장도가격이 kg당 27원까지도 폭락했었다. 염산 제조회가는 합성염산의 경우 kg당 45원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염산가격이 이처럼 하락한 것은 90년9월 동양화학이 7만5000톤 규모의 TDI 공장가동에 따라 부생염산을 생산하게 됨은 물론 한양화학·백광산업 등의 고성소다 공장 신·증설로 국내 염산 생

<표> 국내 염산 수급동향

(단위:톤)

구 분		공 급			수 요		
연도	생산능력	생산	수입	계	판 매	자가소비	계
1990	56,000	386,609	867	387,476	315,954 (수출 260)	66,781	382,735
1991	56,000	410,127	2,912	412,039	360,723 (수출 280)	55,830	416,553

산능력이 56만톤체제에 들어섰고 수입물량까지 가세, 공급과잉상태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한편, 90년 국내염산(35% 기준) 총 공급량은 생산 38만6609톤, 수입 867톤 등 38만7476톤을 기록했으며, 총 수요량은 판매 31만5954톤(수출 260톤 포함), 자가소비 6만6781톤 등 38만2735톤으로 과잉률 177%를 기록했다.

91년은 생산 41만127톤, 수입 2912톤으로 41만3039톤이었으며, 수요량은 판매 36만723톤(수출 280톤), 자가소비 5만5830톤 등 41만6553톤으로 과잉률은 155%였다.

<화학저널 1992/3/15>